

제25차 정기이사회 주요 의사록

1. 회의개요

- 일 시 : 2016년 3월 2일 수요일 11:00 ~ 12:30
- 장 소 : 달개비식당(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 출석현황 : 총 재적이사 9명 중 6명 참석(대리참석 1명 포함)
- 본인참석 : 김상헌이사장, 임영웅이사, 한태숙이사, 고희경이사, 김윤철이사,
우상일이사(대리 : 하현진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김성규감사
- 특기사항 : 윤미경사무국장(간사)

2. 보고사항

- 제24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 국립극단 2015년 주요 사업실적

3. 심의안건

-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5년 결산(안)
-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제규정 개정(안)

4. 의결결과

- 제1호 의안 : (재)국립극단 2015년 결산(안) - 원안가결
- 제2호 의안 : (재)국립극단 제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5. 기타사항

- 제25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 끝.

주요회의록

2016.03.02

○ 의 장 : 재단법인 국립극단 이사장

<성원보고>

이 사 장 : 국립극단 제25차 정기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께서는 성원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9명중 6명 참석하셨고, 감사님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사 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국립극단 제25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는 보고안건 2건, 심의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고사항 보고, 안건 심의 순으로 이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사 장 : 첫 번째 보고안건은 전차 24차 정기이사회 의사록과 의결처리결과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제24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및 의결 처리결과' 설명함

이 사 장 :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문 또는 의의 있으십니까?

전체이사 : 없습니다.

이 사 장 :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보고사항은 이대로 접수하도록 하고, 다음 보고사항은 국립극단 2015년 주요사업 실적보고입니다. 감사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 '2015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자료 보고함

이 사 장 : 작년에 통합이라는 어려운 역할도 잘 수행하시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신 거 같습니다. 방금 2015년 주요사업 실적보고를 받으셨는데,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두 번째 보고사항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전 사항>

이 사 장 : 제 1호 심의안전은 (재)국립극단 2015년 결산(안)입니다. 안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2015년 결산(안)은 경영관리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팀장 : 2015년도 결산(안)의 예산수지 및 요약재무제표에 대하여 자료 설명함.

이 사 장 : 다음은 2015년 회계결산 내용에 대해 김성규 감사께서 감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성 규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고, 저도 내용을 검토하였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습니다. 작년에는 통합에 따른 회계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해였는데 작년 말부로 국립극단의 회계시스템이 안정화가 된 거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 장 : 2015년 결산(안)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감사인의 감사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은 재무제표에 한해서
죠? 이런 재산이나 정부출연보조금의 예산과 기업회계는 차이가 있
는 것인가요?

김 성 규 :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 장 : 그럼 예산은 관리회계 같은 것인가요?

김 성 규 : 예산은 현금흐름표 같은 현금출납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 장 : 예산은 먼저 설명드린 예산수지총괄표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의의가 없으시면 제1호 안건 (재)국립극단 2015년 결산(안)을 가결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호 심의안건은 (재)국립극단 제규정 개정(안)입니다. 안건 설
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제규정 개정(안) 주요내용을 자료 설명함.

이 사 장 : 제규정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고 희 경 : 외부에서 보기에선 어린이청소년연구소가 지금까지는 교수진·전문가
들이 계셔서 운영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에 있는 부소장, 팀장
이 실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국립극단의 어린이청소년극연
구소가 가지고 있는 컬러가 있었는데 이런건 어떻게 유지하시는건
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공연기획팀의 사업하고 성격이랄까 어
떤식으로 운영하실 예정이신가요?

김 윤 철 : 현재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하는 작품 기획, 교육프로그램의 사업
은 변화가 없구요. 다만 제 직속으로 있고, 사무국 산하에 있지 않았
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인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
무국장 회의를 하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거길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섯팀이 어떤 결정을 하면 그쪽이 항상 다른 결정을 하거나 또는 이미 결정된 것을 재조정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효율이 있었고, 또 예산의 집행이나 사업의 시스템이 타부서와 비교할 때 조직적이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항상 내년도 사업을 올해 미리 계획해서 해야 하는데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는 항상 당해연도에 계획해서 그 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극단으로서도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에 사업의 계획을 따라가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제 개편을 통해 행정효율을 더 높이자는 차원입니다. 다만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이름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전문성과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이나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집행했던 사업들의 계속.지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행정적 조직의 운영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우리나라 청소년극이 대단히 열악한데 이 부분에서 개척을 해서 좋은작품을 많이 올렸으나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방만하게 펼쳐져 있어 그 사업 자체를 연극계와 내부.외부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려도 많아서 사업을 좀 더 단순화 하여 극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제작위주로 좋은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앞으로 소장이 실무진으로 구성되다 보면 제가 간섭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무국에서 다른 부서들과 따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그것이 비효율에 그치는게 아니라 행정의 미숙으로 연결되다 보니 이 부분은 공적기관인 극단으로서의 행정의 미숙은 책임지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오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간 사 : 부연설명드리면 연구소가 별도로 있다 보니 인원도 제한되어 있었고 지금까지도 소수인력으로 연구소가 운영되어 있는데요. 행정기구로 다시 편제되면 인원조정도 유동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보다 훨씬 사무국안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거라 여겨 집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연구소에 있는 직원조차도 공연을 제작함에 있어 마케팅이나 홍보도 별도로 운영하다보니 충분히 활용도 못

하고 있었고 저희는 결정된 상황에서 보조 정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그동안 성과는 좋았지만 홍보나 마케팅 업무가 굉장히 열악했었고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태 숙 :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전문가의 운영이 아닌 경영의 효율을 위해서 사무국 산하에 두었다는 인상이 강한데 어느것이 중요한가요?

김 윤 철 : 조직도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작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행정적 효율을 위해서 사무국으로 옮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극 관계자들 중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좀 더 여론이 뒷받침 해줄 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진행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지금까지 직제개편의 취지와 주요사항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이 사 진 : 네 이해했습니다.

고 희 경 : 예술감독님과 사무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이 사 장 : 지금까지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개방형 직제였던 것 같습니다.

김 윤 철 : 네 맞습니다. 말기고 위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가 독립된 어린이청소년극 국립극단을 만드는 전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독립된 어린이청소년극 극단을 만드는 것은 빠른 시간내에는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국립극단에서 실질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이런 일에 충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 성 규 : 소장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까?

간 사 : 네. 소장님이 그만두시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저희생각은 부소장님이 계시니 부소장님께서 소장을 하시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 윤 철 : 어린이청소년극을 평생을 두고 작업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소장을 하는데에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 사 장 : 공연기획팀장과 비교하면 어느 분이 더 경력이 높은가요?

간 사 : 부소장님이 더 경력이 많습니다.

이 사 장 : 소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직급인 듯 보입니다. 다른 부서 팀장과 같은 급인거죠?

김 윤 철 : 어린이청소년극 사업의 지속성과 그리고 직원이나 어린이청소년극 관계자들도 연구소로 있을 때 더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 희 경 : 공연기획팀하고 홍보마케팅팀 업무가 조정이 됐고, 공연기획팀 업무가 더 늘어났는데 새로운 팀장께서 역량을 발휘해서 하시는건가요?

간 사 : 인원을 증원했고, 담당팀장도 역량이 높습니다.

김 윤 철 : 홍보마케팅팀에서 그 업무를 하던 직원들도 공연기획팀으로 전보됐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실(콜센터)은 공연기획팀에서 홍보마케팅팀으로 보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김 성 규 : 이번 안건하고 관계가 없긴 하지만 제가 조직을 보니 지금 현재 명동 예술극장과 통합하고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도 사무국으로 들어오면서 조직이 커지는데 관리쪽 사이드의 업무도 늘어나거든요. 이 관리 업무를 하는 경영관리팀을 하나로 몰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극단에 관련된 공연기획 말고 경영기획업무, 평가업무 이런 서서히 분리하는 고민들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갈수록 재원 관련 문제들이 생길텐데 조직이 성장하기 위한 재원개발을 하는 정책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니다. 후원회 운영도 갑자기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향후에 고민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예술감독 계실 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 윤 철 : 홍보마케팅팀 새 팀장이 기업스폰서를 찾는 등 재원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전념하도록 강조도 하고 있고 또한 이사장님이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계시고 실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예산 부족합니다. 해야 할 사업에 생각해보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예를 들어 영국 코트극장은 국고보조가 전체예산의 20%가 안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70%까지 재정자립도를 높였습니다. 그런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조직이 엄청나게 다양화 돼 있으면서 사업단위로 독립된 조직처럼 움직이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긴 현실적으로 힘들고 중요한 것은 제작비를 충분히 들여 질 좋은 공연 올려서 관객확대와 티켓수입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 성 규 : 우리나라 예술단들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의 팬덤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관극회원 말고 예를 들어 국립극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길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김 윤 철 :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제가 서울시향 이사도 하고 있어 보니까 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이 보 조금이 100~110억정도 되고, 자체공연수입과 기업협찬금이 45~6억이 되더라구요, 자립도가 상당히 올라왔는데 단지 돈을 번다라는 것보다 올해 몇 번의 공연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수입면에서 많은 구멍이 났고 관객이 급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서울시향 사태 등과 기업협찬이 주저하면서 실제로 객석을 메우는 데 있어 기업이 사 들였던 표가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3분의 1이 비어버리는 굉장히 썰렁한 공연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립극단이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일이 쉽지 않은, 꼭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감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 윤 철 : 작년 메르스 시기에 한독 합작 ‘더파워’ 공연의 객석점유율이 52%, 유료점유율이 22%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료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5%가 상승하는 성과가 있었고, 작품의 질이나 수준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좋은연극엔 관객이 있다는 확신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낙관합니다만, 올해는 35%수준의 자립도를 높여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 사 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호 안건 (재)국립극단 제규정 개정(안)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 진 : 이의 없습니다.

이 사 장 : 그럼 제25회 정기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에 기명날인함.

이사장 김상헌 (인)

이 사 김윤철 (인)

이 사 임영웅 (인)

이 사 고희경 (인)

이 사 한태숙 (인)

이 사 우상일 (인)